

# 건강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지난해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교과부 보건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에서 1개 학년씩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이 실시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는 보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50년 만에 보건교과가 부활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한 시평을 의뢰하였다.

요즘은 나이가 든 분들 사이에 회자되는 속칭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생 1막인 직장에서 은퇴한 후 인생 제2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남자들은 1위로 건강, 2위로 부인의 생존 등의 순이고, 여자들의 경우는 1위로는 남자와 똑같이 건강, 2위로는 돈 등의 순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하나는 남·녀 모두 건강을 1위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유머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해석해보면 건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생각을 해보면 건강을 모두 1위라고 꼽은 것은 국가로부터 건강에 관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학교 등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 교육을 해오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느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적인 면으로 제한하여 살펴본다면 국민들은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실시를 원한다고 해석된다. 국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2009학년도부터 각급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논란이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방법상의 차이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즉 누가, 어떤 교과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건강교육에 보다 효과적이며, 교육 현실과 학교현장에 적합한 것인가의 논쟁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 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건강교육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상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국가를 향한 서비스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진다.

특히 압축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양자 사이에 간극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보건교육도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해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인용한 시중에서 떠도는 유행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사회 상황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배고픔 등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는 보다 질 높은 행복한 생활이고, 그런 생활을 위

해서 요구되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국가가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건강하면서도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대학 수능시험을 위해 비행기 이착륙을 중지시키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이토록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요구 수준이 너무도 높다보니 학교교육을 통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 학교 담장 밖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학원교육을 비롯한 사교육이 번창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국민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서 사회문제화가 되어 있다.

건강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다. 건강교육 중에 한 부문인 성교육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하는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이 학생들의 사고 수준, 정서와 경험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환언하면 학교에서 보다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유란물을 통해 잘못된 성 정보를 얻을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잘못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면 덜 범람하지 않았을까하는 지극히 원문적인 생각을 해본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2009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원하는 충분한 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복한 삶이 영위되길 바란다. 또한, 학생들도 음란물이 아닌 정상적인 과정, 질 높은 학교교육을 통해 배워 건강하고 건전한 꿈을 키우는 삶이되기를 바란다. 또 보건교과가 모든 학생들이 가장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교과, 가장 사랑받는 교육영역이 되길 바란다.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보건교육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